

청소년 흡연 실태와 대책

박 명 윤*

- I. 머리말
- II. 흡연실태
- III. 흡연피해
- IV. 대 책

I. 머리말

전세계적으로 10억의 인구가 연간 담배 5조 개피(1인당 하루 14개피에 해당)를 피우고 있으며 매년 250만명(매13초당 1명꼴)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줄잡아 1천만명을 넘어 세계গুল지의 흡연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 해 2만3천명(85년 기준)이 흡연과 관련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숫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1만2천6백3명(89년)보다 거의 두배나 많다.

담배의 피해가 확실히 알려지면서부터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비해 청소년과 성인 여성들의 흡연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10대의 비행은 청소년의 직연

과 정비례하고 있다. 즉 흡연행위는 청소년들의 모방심리와 반항심리에 편승하여 청소년다운 보다는 어른스러움을 추구하게 되고 이같은 경향은 썩사리 비행과 심지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진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창립 40주년이 되던 1988년 4월 7일을 제1회 『세계 금연의 날 World's No-Tobacco Day』로 선포하고 담배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 규범으로 금연을 장려하여 담배연기가 없는 건강한 사회를 권장하고 있다.

작년 「금연의 날」(5월 31일) 주제는 『여성의 흡연, 또 하나의 위험 The Female Smoker: At Added Risk』이었으며 금년의 주제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담배로부터 구하자 Childhood and Youth Without Tobacco』로 WHO에서 채택했다. 즉 1990년은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금연운동의 주제로 선택한 해(年)이다.

II. 흡연실태

1. 담배의 역사

담배가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기호품이 된

것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 인디안들이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담배를 스페인에 전한 것이 담배 보급의 시초이다.

서양에 처음 소개된 담배는 아이로니컬하게도 건강에 좋다는 약용설로 인하여 폭발적인 수요를 낳았으며, 심지어 영국에서는 전염병이 퍼지자 담배를 피워야 예방할 수 있다며 남녀노소 모두 담배를 피우게 했으며 학교에서는 조례시간에 전교생이 일제히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도 있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전래된 연대와 경로에 대한 정설은 없으나 국내 문헌에 단편적으로 나타난 기록을 종합하면 1608~1616년 사이에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담배가 전래된 당시 우리나라는 의약품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담배를 약으로 간주하여 소화기계 질환 또는 기생충으로 인한 여러가지 소화기계 증상의 대증요법으로 흡연을 하였으며 특히 담(痰)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다고 선전되었다.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후 찬연론자는 흡연은 담을 치료하며 기분이 나쁠 때 소화가 잘 되고 겨울에 한기를 막는데 유익하다는 등 주로 의약상 약효를 주장하고, 한편 배연론자는 좋은 밭이 담배경작으로 곡식농사에 지장이 있고 항상 불을 사용하므로 화재의 위험이 따른다고 배척하였다.

2. 성인의 흡연을

우리나라에 담배(淡婆姑)가 처음 소개된 이후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연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양반 계층과 중인들의 성인층에는 애용되었으나 당시 담배의 생산량, 가격, 사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상민들은 흡연할 기회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당시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극히 낮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담배가 도입된 이후에 강력한 제지를 가하지 않으면 남자 20~40대 성인의 75%가 흡연을 한다. 즉 네사람의 성인 남자중 세사람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남자 성인의 흡연율이 75%에 달한 시기는 1950년 전후이며, 일본은 1960년경이 된다.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196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여 1975년에는 80%까지 달했으나, 갤럽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 82년 흡연율은 67.7%, 86년 73.7%, 87년 74.2%로 낮아졌지만 구미 선진국(20~30%)에 비하면 매우 높다.

최근 군진의학회가 육군 병사 9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사병의 흡연율이 82.5%였으며 특히 제대를 앞둔 사병의 경우는 9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에 입대한후 흡연량이 많아진 경우도 54.3%나 되어 군생활이 흡연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높은 흡연율의 주원인은 모든 장병에게 담배가 사실상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미국 월드워치연구소의 보고서(85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담배 소비량이 세계 6위로서 흡연왕국으로 꼽혀진다.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량은 61년 229억개피(국민 1인당 하루 2.4개피)이던 것이 71년에는 497억개피(하루 4.1개피), 81년에는 731억개피(하루 5.2개피)로 늘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즉 82년의 740억개피에서 86년 783억개피로 4년사이 연평균 1.5%씩 상승하였다. 그

러나 87년 담배판매량은 818억5천만개피에 달해 86년에 비해 무려 4.8%가 증가했다. 이외에 양담배도 2억8천만개피가 팔려 87년 한해 총 821억3천만개피의 담배가 소비되었다. 이를 1천만명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직연인구로 나누면 한사람이 연간 8,186개비(하루 22.4개피)를 피웠다는 계산이다. 이것을 돈으로 따져보면 87년 한해에 1조9천억원어치의 담배가 연기로 사라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3. 청소년 흡연율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에 속하여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흡연은 상당기간동안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왔으나, 1980년대 교복 및 두발 자유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흡연인구가 매년 크게 늘고 있

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일순 교수팀이 전국 남자 중학생(1988년 1,682명, 1989년 1,453명)과 고등학생(88년 1,755명, 89년 1,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실태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의 흡연율은 88년 9.5%에서 89년 17.3%로 증가했으며, 고2는 19.1%에서 26.8%로, 고3은 40.4%에서 5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 흡연경험자를 포함하는 89년도 흡연경험율은 중학교 1학년 14.1%, 중2 28.2%, 중3 30.5%, 고등학교 1학년 48.3%, 고2 51.7%, 고3 72.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10명중 7명은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있으며 그중 5명은 현재도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과 표2참조>.

<표 1>

1988년 남자 중·고등학생의 학년별 흡연실태

단위 %

흡 연 별	중 학 생			계	고 등 학 생			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현 재 흡 연	0.4	2.1	2.7	1.8	9.5	19.1	40.4	23.9
과 거 흡 연	11.0	19.2	20.0	16.9	32.3	26.7	26.7	28.5
비 흡 연	88.6	78.7	77.3	81.3	58.2	54.2	33.0	4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서일 외, 전국 남자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 한국역학회지 10(2) : 221, 1988

<표 2>

1989년 남자 중·고등학생의 학년별 흡연실태

단위 : %

흡 연 별	중 학 생			계	고 등 학 생			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현 재 흡 연	0.8	1.6	2.0	1.5	17.3	26.8	50.0	32.0
과 거 흡 연	13.3	26.6	28.5	23.0	31.0	24.9	22.4	26.0
비 흡 연	85.8	71.8	69.5	75.5	51.7	48.2	27.6	4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와 건강, 1990.

한국약물남용연구소 주왕기 교수팀이 서울을 비롯한 5개 직할시, 11개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6,240명(남학생 2,950명과 여학생 3,290명)을 대상으로 1989년 10월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 58.0%와 여학생 16.1%가 흡연경험이 있었으며, 남학생의 37.8%와 여학생의 7.8%가 현재 흡연자였다<표3참조>.

<표 3>

흡연 및 음주 경험도

단위 : %

구분	경험자			30일 이내			30~12개월 사이			12개월 이전			비경험자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담배	58.0	16.1	37.1	37.8	7.8	22.8	7.3	1.7	4.5	12.9	6.6	9.8	42.0	43.9	63.0
술	84.2	52.1	68.2	46.9	21.1	34.0	23.6	15.4	19.5	13.7	15.6	14.7	15.8	49.7	31.9

자료 : 주왕기, 한국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1990.

체육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교청소년(2,724명)과 취업중인 근로청소년(501명), 소년원에 재소중인 비행청소년(907명)들을 대상으로 1989년에 실시한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분석중에서 흡연의 경우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남자가 26.5%, 여자가 6.7%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약 4배가 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71.1%로 여학생 15.1%의 5배 가까이 된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가 81.1%, 여자는 13.2%로써 남자가 여자의 6배가 넘는다. 비행청소년은 남자가 97.0%, 여자가 89.3%로 나타나 남녀 비행청소년 대부분이 담배를 피운다. 따라서 흡연이 비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표 4참조>.

<표 4>

89년도 학력·성별 약물남용 실태

단위 : %

	학 생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음 주	35.3	11.7	83.9	52.8	89.7	71.4	93.4	89.3
흡 연	26.5	6.7	71.1	15.1	81.1	13.2	97.0	89.3
각 성 제	19.8	15.2	32.8	34.9	44.2	35.3	34.1	42.9
본 드	1.7	0.9	11.1	0.8	16.3	4.0	46.2	61.5
대 다 초	0.7	0.3	4.7	0.4	7.1	0.3	27.9	37.3
안 정 제	5.0	3.3	7.7	1.4	9.1	2.6	30.9	43.8
최 면 제	3.6	3.9	10.8	2.2	14.7	8.5	17.5	31.4
마 약	0.4	0.4	1.5	0.2	3.4	0.3	8.4	23.1
히 로 뽕	0.9	0.0	1.7	0.0	3.3	0.9	8.7	22.6

자료 : 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1989.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리스피아르조사 연구소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10개 도시에 거주하는 13~59세 남녀 3천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9년 한국인 라이프스타일 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흡연율이 88년의 18.4%에서 89년에는 29.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0대 여자의 흡연율도 1.6%에서 8.7%로 무려 5배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미국의 남자 12~14세의 흡연율 3.2%, 15~16세의 13.5%, 17~18세의 19.3%에 비해 훨씬 높다.

III. 흡연피해

1. 흡연과 청소년의 건강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입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문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담배갑의 경고문이다. 역사상 담배의 판매와 보급을 가장 많이 반대했던 영국의 제임스 1세황제는 『담배는 눈에 보기 싫음을 주고, 코에는 증오를 주며, 뇌에는 손상을 일으키고, 폐에는 해를 주며, 입에서는 고약한 냄새를 낸다』라고 평했으며, 19세기 미국의 시인 홈즈는 『담배는 악마로부터 나온 더러운 잡초다. 그것은 너의 지갑을 말리고 너의 옷을 태우며, 그래도 모자라서 너의 코를 굴뚝으로 만들어 몸을 망친다』라고 혹평을 했다.

영국왕립의사회는 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마다 5분30초씩 수명이 단축된다고 오래전에 밝힌바 있다. 즉 전체적으로 흡연자의 수명은 5~8년이 준다는 것이다. 의학자들은 건강장수를 위협하는 최대의 단일 원인으로 흡연을 꼽

고 있다.

담배를 피울때 입에서 나오는 연기를 주류연 *mainstream smoke* 라고 하고, 담배의 끝부분에서 나오는 연기를 부류연 *sidestream smoke* 이라 하며, 흡연자가 실내에 뿜어내는 연기의 75~85%가 부류연이다. 담배 연기속에는 약 4천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약 2백여종은 우리 몸에 해로운 발암물질, 암유발물질, 기관지점막 기능에의 독성물질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니코틴, 타알, 일산화탄소 등이다.

니코틴 *nicotine* 은 마약과 비슷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니코틴 중독이 된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금단증상(禁斷症狀)이 일어난다. 타알 *tar* 속에는 20여종의 강력한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담배를 피우면 각종 암(폐암, 후두암, 기관지암, 위암, 방광암, 자궁암 등)에 걸릴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일산화탄소는 만성 저산소증을 일으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손상을 입혀 조기 노화현상을 일으킨다.

흡연에 의한 건강장해는 각종 암, 폐질환, 심장혈관질환, 위장장애, 임신부 흡연의 합병증 등이다. 일본 히라야마(平山雄)박사의 15년간 조사에 의하면 남자 흡연자의 발암율이 비흡연자보다 후두암은 32배, 폐암 4.4배, 구강암 2.5배, 식도암 2.2배, 방광암 1.7배, 췌장암 1.6배, 간암과 위암이 1.5배 높았다.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사망자의 80~90%, 폐암환자의 85%, 심장병환자의 30~40%가 장기 흡연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1.5배나 높고 노인성 치매에 걸릴 위험도 4배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약시·간질·말초신경염·만성두통

등도 흡연자에게 높이 나타나며, 말초혈관의 부전으로 발기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과도한 흡연은 생식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하며 남녀 수정능력이 감소된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임신부가 담배 한개비를 피울 때 마다 태어날 아기의 몸무게는 약 11g씩 줄어든다. 즉 임신중에 흡연한 모체에서 태어난 아기는 체중이 평균 2백g이 적으며, 유산 및 조산율도 3.3배나 높고 기형아 출생률과 신생아사망률도 높다. 이것은 흡연시 만성저산소증과 혈액순환장애가 있으나 각종 태아의 결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자보건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요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흡연, 특히 여학생들의 흡연과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미혼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분석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 더 빨리 늙어 일찍 노인이 되며 약 10년 일찍 죽게된다. 또한 각종 암의 발생율은 3배, 폐기종은 6배, 심장질환에 이환되어 사망할 확률도 3배나 높다. 이밖에도 각종 성인병에 이환되어 여러가지 병으로 병원 신세를 더 많이 지고 물론 의료비도 많이 든다.

최근 미국 의무총장 *Surgeon General*의 보고서에 의하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5.2배인 데 비하여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18.7배에 달한다. 즉 청소년의 흡연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

2. 흡연과 청소년 비행

대개의 경우 청소년 비행의 첫걸음은 흡연으

로부터 시작된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 끼리는 자연스럽게 그룹(또래 집단)이 형성되고, 이는 술이나 다른 약물에 까지 탐닉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자제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각종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체육부가 조사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약물 상호간의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흡연은 음주(.487)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그 다음이 본드(.250), 최면제(.197), 대마초(.173), 각성제(.132), 안정제(.120), 마약(.077), 히로뽕(.060)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때 청소년의 약물남용시기가 비행행위시기 보다 먼저 일어난다. 즉 13세에 흡연과 음주를 시작한 후, 14세에 반항행위를 시작으로 음란비디오관람, 무단결석, 술집출입, 금품갈취, 흥기소지, 가출, 성관계, 학교처벌, 경찰서에 불려간 경험 등의 비행이 나타나며, 14~15세에 각성제, 본드, 안정제, 최면제, 대마초 심지어는 마약과 히로뽕 등의 약물을 사용한다.

흡연, 음주 등이 일반적으로 비행 행위보다 먼저 나타나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금연과 금주를 잘 지도하면 약물사용의 발전과 비행으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흡연은 생리적 욕구에서라기 보다는 심리적 작용에 의해 비롯된다. 즉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성인 모방심리, 친구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어른이 다된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자기과시욕, 호기심,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이성문제에 대한 고민해소, 친구와 어울리기 위한 방편, 사회적인 억압과 권위에 대한 반항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동기로서 1988년에는 스트레스 해소(31.0%),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26.9%), 호기심으로(24.5%) 순이었으나 1989년에는 호기심으로(31.4%),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29.3%), 스트레스 해소(25.8%)순이었다. 청소년의 주요 흡연동기가 88년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담배에 대한 직접적 욕구였으나 89년에는 호기심이나 교우관계와 같은 심리적·사회적 요인에 의한 간접적 동기였다. 이점은 담배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표 5 참조>.

<표 5> 고등학생의 흡연동기

흡 연 동 기	단위 : %	
	1988년	1989년
호기심으로	24.5	31.4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26.9	29.3
멋있게 보이려고	4.3	4.7
스트레스 해소	31.0	25.8
기 타	13.3	8.8

자료: 서 일, 이해숙 등(1990), "전국 담자증·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 한국역학회지 1988; 10(2): 233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와 건강.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흡연을 혼자 시도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집단으로 감행한다. 즉 개인의 흡연욕구 보다 집단에 대한 동조 또는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다.

흡연행위는 청소년들의 꿈많은 의식세계에 전환점을 줄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반항·모방심리에서 시작되는 흡연행위는 대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적극적인 인생관보다는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을 조장할 수 있으며, 지나칠 경우 범죄의 늪에 빠질 소지를 만든다. 또한 흡연과 음주는 청소년의 인격발달에도 영

향을 미쳐 인격장애나 정신장애의 요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된 성인으로 자연스러운 이행을 어렵게 한다.

IV. 대 책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의 연소화 추세, 흡연율의 급격한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40대가 되는 2천년대 우리나라 장년층의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력의 소모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우리는 흡연이 염연초 재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담배제조에 따른 부가가치, 담배 판매소득 등 국가의 전매수익금을 증대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자원의 편익은 소비자인 흡연자의 가계지출을 통한 비용부담과 상쇄되므로 흡연에 따른 편익은 거의 없다.

한편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흡연관련 질병치료비용,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감소, 화재로 인한 손실 등 여러가지 손실 항목이 있다.

1985년을 기준으로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연간 1백50만7천명이며 이들의 진료비, 교통비용, 노동력 상실로 인한 생산감소액 등은 약 649억원으로 계산되며,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만7천5백30명이며 사망자의 평균여명(손실연수)은 24만7백년으로 이에 따른 생산감소액은 4,290억원으로 추정된다. 흡연에 따른 화재피해는 37억원. 흡연으로 인한 실내공기 정화비용 등 간접적인 경제손실은 8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토대로 하면 85년 한해동안 흡연으로 인하여

약 5천57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표 6 참조>.

<표 6>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손 실 항 목	손실추정액 (백만원)
1.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감소액	429,086
2. 질병발생관련비용	64,871
직접치료비용	42,189
간접적인 교통비용	2,518
생산감소액	20,164
3. 화재로 인한 손실	3,650
재산피해	1,663
사망으로 인한 생산감소액	1,967
부상 치료비	20
4. 기타 경제적 손실	8,111
계	505,718

자료: 박종구 외, 흡연의 경제적 손실 분석, 1989.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5,057억원)이 보건부예산규모(85년도 기준 4,198억원)의 약 1.2배가 된다는 것은 금연을 했을 때 그만큼 규모의 돈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전매수익금(85년 기준 약 8,290억원)에 사로잡혀 금연운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미 선진국들은 오는 2천년까지는 담배를 완전히 추방하여 담배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강력한 금연정책과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란서 미테랑대통령은 『국민의 자기파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 아무리 엄격하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흡연·음주 규제 법안』을 정당화했다. 이미 Clean Government, Clean Street정책에 성공한 싱가포르 정

부는 금연정책인 “Clean Air정책”을 추가하여 “3C 정책”을 펴고 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이미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금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1. 포괄적인 금연법을 제정한다

흡연은 금연 권고만으로는 막기 어려우며 특히 공중 도덕심이 결여된 흡연자들 가운데는 법적인 규제없이 흡연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담배를 피울 권리가 애연가에게 있다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담배연기를 혐오하고 멀리할 권리 이른바 혐연권 또한 비흡연가에게도 있는 만큼 법적규제가 필요하다. 이미 세계 70여개국이 금연법을 제정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보호법, 공중위생법, 공연법 등에 금연규정이 있으나 규제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므로 포괄적인 금연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연법을 제정할 때까지는 현재 금연규정이 있는 법률들을 강력히 집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직연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제3조), 연초 판매자 및 그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직용할 것을 알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되며(제4조), 이를 위반한 연초 판매자 및 고용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6조) 등의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고 있다.

2. 가정에서의 금연지도가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는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으므로 부모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자녀의 생명을 그만큼 단축시킨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어른들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남자 중·고등학생들은 대상으로

가족중에 흡연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70.6%, 고등학생은 78.0%가 가족중에 흡연자가 있다고 하므로 청소년 흡연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가족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7 참조>.

<표 7>

가족 흡연과 고등학생의 흡연 관계

흡 연 상 태	가족 중 흡연자 유무		계
	유	무	
현 재 흡 연	25.8	15.9	23.7(409)
과 거 흡 연	29.0	27.3	28.6(494)
비 흡 연	45.2	56.8	47.7(822)
계	100.0	100.0	100.0(1,725)

$X^2=20.02$, $P<0.01$

자료: 서 일 외,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 한국역학회지 10(2): 222, 1988.

가정불화·이혼·알콜중독·실업 등의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 흡연율이 높으므로 우선 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여야 하며, 무관심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지나친 기대와 간섭, 과잉 보호 등을 지혜롭게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 가방·책상 등에서 담배·성냥 등이 발견되거나 몸에서 담배냄새가 날 경우에는 대화와 설득으로 흡연의 근본적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흡연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님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또한 부모 또는 친권자가 자녀의 흡연을 제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본의 『미성년자 금연금지법』 친권자처벌 조항과 같이 벌금(일본 4천 엔 미만의 과료)을 부과하는 것도 부모에게 자녀들의 흡연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다.

3. 학교 전체를 완전 금연지역으로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청소년의 교내 흡연을 철저히 규제 단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것은 교내는 물론 학교 바깥이라도 학교관계행사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위반 학생에 대한 벌칙은 각주(洲)의 학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주의 경우 1회 위반에 이틀간 등교정지, 2회 위반에 이틀간 훈계교육, 3회 위반에 사흘간 등교정지 등의 벌칙이 적용되며, 뉴저지주의 경우는 1회 위반에 경고장, 2회 위반에 25달러, 3회 위반에 1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두발 및 복장이 자율화돼 사회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졌는데 80년대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흡연 학생에게 유기정확처분을 내렸으나 내신 성적이 대학입시에 반영된 이후 흡연을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을 꺼리고 금연학교 입교나 화장실 청소 등의 징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을 통해 야기되는 문제 즉 대입위주 교과운영,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성적 부진, 바람직하지 못한 교우관계, 미온적인 생활지도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

우선 학교 교실 및 운동장 등 전체구역을 완전 금연지역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철저한 생활지도를 하여 흡연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징계를 하여야 한다. 한편 학생청소년들의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문화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4. 금연지도를 각급학교 보건교육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다

청소년 흡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부모나 교사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어 학교나 가정내의 금연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학교부터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담배의 해로움을 알려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학년별 금연지도 부서와 지역별(각 구 또는 동별) 금연학교를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연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의 강압적 교육이 아니라 담배가 왜 유해한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설득력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모형 인형을 통해 담배연기가 폐에 까지 어떻게 들어가며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며 흡연자의 시커먼 폐와 비흡연자의 분홍색 폐의 모습을 비교 전시하고, 담배 연기중의 일산화탄소 등 유해성분의 양을 직접 측정하여 이를 실험용 쥐에 투여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실험을 통해 보여준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청소년흡연을 건강문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시청각교재도 다채롭게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성(문교부)은 1986년에 금연교육을 국민학교때 부터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방지 지도서를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으며, 후생성(보사부)은 전국 862개소의 보건소를 거점으로 종전 흡연의 해를 강조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실천 가능한 금연방법들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강력한 금연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내의 금연교육으로 시청각교육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 생활지도를 통한 금연유도, 교과시간중의 금연교육, 학생들의 자율적 금연서

<표 8>

학교 선생님의 흡연 여부

(단위: %)

내 용	학교청소년 (N=2724)	근로청소년 (N=501)	비행청소년 (N=907)
대부분이 흡연하신다.	40.2	48.9	62.0
일부 선생님만 흡연한다.	48.8	43.1	30.0
흡연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다.	11.0	8.0	7.7
계	100.0	100.0	100.0

클 육성, 흡연 교사들의 금연사례 소개 등이 있다. 교사들의 흡연이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흡연교사들은 출선수범하여 금연하여야 한다(표 8, 표 9 참조).

〈표 9〉

선생님의 흡연에 대한 나의 인식

(단위 : %)

내 용	학교청소년 (N=2724)	근로청소년 (N=501)	비행청소년 (N=907)
피우시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2.6	9.3	7.8
선생님이니까 이해한다.	19.6	20.6	37.7
학생들 앞에서는 피워서는 안된다.	77.8	70.1	54.5
계	100.0	100.0	100.0

자료 : 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1989

혼자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혼자 마라톤을 하는것 처럼 힘이드므로 주위 사람들과 같이 시도하거나 금연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좋다. 금연교육을 받고난 직후에는 수강생의 90%이상이 금연에 성공하나 2~3개월후 30%정도가 또 다시 흡연을 한다. 이는 금연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담뱃갑의 경고문을 강화한다

흡연의 해독을 국가기관이 공식 선언한 것은 1964년 1월 미국의 보건성이다. 얼마후 미국의 담배 포장지에는 『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문이 나붙기 시작하였으며, 『해로울지도 모른다 may be.』는 얼마뒤 『해롭다 is.』로 바꾸었다.

이 경고문도 시일이 지날수록 효력을 잃었다. 그래서 1984년 5월 미국 하원은 흡연의 해독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담배의 경고문을 더욱 구체화시키자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담배에는 4가지 경고

문(① 흡연은 폐암·심장병·폐기종을 유발하고, 임신에 장애를 줄지도 모른다. ② 임산부의 흡연은 치명적인 폐해나 미숙아 및 저체중아 출산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③ 담배연기는 일산화탄소가 함유되었다. ④ 금연은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 serious risks을 크게 감소시킨다) 가운데 한가지는 꼭 붙어있다. 참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문구이며 이러한 경기를 읽으니 흡연 인구가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WHO의 권유에 따라 1976년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문 『건강을 위해서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를 사용하였으나 이 문귀는 흡연 해독을 알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담배갑의 흡연 경고문은 1988년 7월 수입 양담배의 광고허용과 때 맞춰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을 표시해야 하고 경고문귀는 제무부장관이 보사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했었다.

이에 보사부는 1988년 12월 금연운동단체, 여성단체, 언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담뱃갑에 인쇄되고 있는 흡연경구가 애매한 표현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고=담배는 암 심장병 폐질환 조산 및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새 흡연경구를 확정하여 재무부측에 이를 인쇄해 줄것을 공식요청하였으나, 재무부측은 보사부가 마련한 새 흡연경구를 담뱃갑에 인쇄할 경우 담배가 적게 팔려 지방세 수입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후 양부처의 합의로 1989년 12월부터 『경고: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성장기의 청소년에게는 해롭습니다』라는 새로운 경고문을 담뱃갑에 인쇄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흡연해독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담배의 유해성분(최소한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표시)을 담뱃갑에 표시하며 또한 경고문도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1991년 6월부터 흡연 경고문을 담뱃갑상단 3분의 2를 차지하는 크기로 인쇄할 예정이다.

6.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2천년까지 현재의 흡연을 27%를 15% 이하로 줄이는 것을 국민건강정책 목표의 하나로 삼고 그 방안의 하나로 89년에 담배세를 담배 소매가격의 49%에서 69%로 인상하였으며, 불란서에서도 담배소비 증가를 막기 위해 담배값을 91년 1월부터 15%인상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담배값 인상 조치가 있는 다음에는 늘 흡연인구가 감소하였다. 즉 75년에는 111만명, 80년에는 119만명이 담배를 끊었으며 86년 담배값의 10.5% 인상시에는 1백만 명이 담배를 끊었다.

담배값이 10% 인상되면 35세 이상의 흡연자

중 1.5%가 금연을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12%가 담배를 끊는다. 담배세를 크게 올릴 경우 담배값이 비싸게 되므로 청소년을 포함한 웬만한 사람은 담배를 필수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값은 외국에 비하여 싸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적은 용돈으로도 담배를 쉽게 구입하므로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하여서(캐나다의 경우 담배 한갑이 약 3천5백원, 스칸디나비아 제국은 약 4천원)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7. 담배 광고를 금지한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담배와 술에 대한 전면적인 광고금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20여개국이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술과 담배에 관한한 비교적 관대한 나라로 알려져 왔으나 청소년들의 흡연율(18세 이하 청소년 흡연율 70%)이 높아 현재도 TV와 청소년용 잡지 등에 한해서는 술이나 담배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93년부터는 일체의 직·간접적 담배광고를 금지하며 알콜 함량 1% 이상인 음료에 대해서도 일체 광고를 금지시킨다.

우리나라는 88년 7월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입 양담배의 광고를 허용하였으며 이들 외국 담배회사들의 판촉 광고에 속아 담배피우는 것을 멋으로 생각하는 풍조도 청소년층을 포함한 흡연 인구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지난 1985년부터 담배판매세 중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1990년 1월부터 담배판매세가 담배소비세로 바뀌면서 전액 지방세화되어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담배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즉 500원 이상짜리 담배 1갑에 360원의 세금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다른 시·도로 여행할 때도 거주지역에서 담배를 사줄것을 광고물을 통해 판촉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사업법을 다시 개정하여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8. 양담배 판매를 규제한다

금연 확대 분위기에 눌려 자국의 시장을 점차 잃고 있는 미국을 위시한 서양의 담배회사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상대적 저개발지역에 대한 시장확대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 담배산업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의 확대를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 담배회사들의 기본적인 판매 전략은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미국 담배를 피우는 것은 미국의 생활 스타일에 접하는 것이라는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심혈을 기울인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양담배의 제품별 판매량을 보면 1.2.3위가 여성용 담배인 이브생로랑·버지니아 슬림·캔트이며 4위가 말보로이다.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88년 7월 양담배의 전면 수입개방과 자유판매를 관철시킨 미국의 3대 담배회사(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즈, B&W)가 노리는 90년 말까지의 우리나라 담배시장 점유율은 10%선으로 올해 판촉비를 작년의 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늘렸다(한국 담배인삼공사의 연간 판촉비는 2억원)

외국산 담배(통칭 양담배)의 국내시장점유율은 86년(7월~12월)의 0.06%에서 90년(1월~4월)에는 5.17%(국산담배 13억9천7백75만갑, 양담배 7천6백21만갑 판매)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는 담배수입회사들이 부당한 경품제공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데도 상당히 기인한다.

89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일본담배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 담배의 10%(90년 7월 현재)를 차지한다. 이는 일본 담배회사측의 불법·변칙적인 판촉 활동과 최근 청소년과 젊은 이들 사이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옷차림 헤어스타일 대중가요 등 일본 선호사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88년 7월부터 90년 4월말까지 양담배 불법광고 4,400건, 불법유통 2,148건, 흡연경고문 위반 115건, 불법판촉 35건, 불법행사주관 7건 등 모두 6,705건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며 2천7백85만원의 벌금과 1억1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양담배는 소매상 뿐만 아니라 담배자판기, 담배를 경품으로 하는 게임 오락기 등을 통해 시간대와 연령층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판매되며, 양담배 수입상 또는 도매업자들은 유흥업소에 많은 마진을 주고 직관하는가 하면 법이 정한 한도 이상의 선물과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양담배의 판촉 대상이 흡연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성과 청소년층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및 여성층의 흡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보라고 담배를 나누어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위를 넓혀 카페·레스토랑·음악실 등 청소년들이 많이 물리는 곳까지 진출하는 실정이다.

외국담배 회사들과 수입상들이 불법적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책이 미흡하다. 허가를 받은 담배소매인을 제외한 모든 담배판매 행위 및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판매를 금지시켜야 하며, 나아가서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배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9. 청소년 금연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담배의 해독에 관해 가장 먼저 눈뜬 나라는 스웨덴으로 이미 1963년에 금연협회가 생겨 적극적인 금연운동을 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3년 미네소타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금연운동이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이제 흡연자는 비문화인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다.

미국 의무총감 쿠프박사는 「담배는 코케인과 같은 마약」이라고 선언하고 2천년까지 미국을 금연사회로 만들겠다고 강력한 금연운동을 추진하여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선진국 여러나라에서도 2천년까지 「담배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7대 권리중의 하나인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내세우며 한국소비자연맹이 85년부터 금연운동을 실시하였으며, 88년 3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발족을 계

기로 금연운동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위하고 흡연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도 금연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회운동을 펴야 하므로 신문 방송 등이 금연 캠페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즉 사회가 전체적으로 금연을 고무하는 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청소년 흡연은 주로 가정·학교·사회 교육의 부재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흡연 현상 자체만을 따로 떼어 『문제』로 해결하려 해서는 아니되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10. 흡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청소년 흡연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실태, 흡연에 관련된 행태와 요인 등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국 청소년을 표본 추출하여 매년 또는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문교부, 보건사회부, 체육청소년부,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각급 학교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에게 적절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일순(1988), 흡연과 건강, 의료보험연합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서 일(1988), “한국인의 흡연율과 역학적 특성”, 한국역학회지 10(2) : 131~137.
- 서 일 외(1988),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 한국역학회지 10(2) : 219~229.
- 이해숙 외(1989),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2년간의 흡연력의 비교”, 한국역학회지 11(2) : 198~209.
- 체육부(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 주왕기(1989), 약물남용, 세계사.
- 주왕기(1990), 한국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한·일 청소년 문제연구세미나 자료.
- 보건사회부(1989), 어떻게 금연할 것인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1990), 청소년 흡연의 문제와 대책, 제3회 금연의 날 기념 세미나 자료.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8), 한국인의 흡연실태.
- 박종구외(1989), 흡연의 경제적 손실분석, 연세대학교 인구 및 보건개발연구소.
- U.S. DHEW(1979), *Teenage Smoking Surveys*.
- U.S. DHHS(1989), *Reduc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